

 **신아일보** (<http://www.shinailbo.co.kr>)

[HOME \(/\)](#) > [로컬+ \(/news/articleList.html?sc\\_section\\_code=S1N17\)](/news/articleList.html?sc_section_code=S1N17) > [부산·울산·경남 \(/news/articleList.html?sc\\_sub\\_section\\_code=S2N92\)](/news/articleList.html?sc_sub_section_code=S2N92)

## 부산교통공사, '도시철도에서 만나는 휴먼북도서관' 운영

조경환 기자 | 승인 2024.04.22 10:25

사람을 읽는 시간 '휴먼북' 강연 개최...매월 세 번째 목요일 2호선 부암역  
자녀교육, 건축물 해설 등 9개 주제로 구성, 부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

도시철도에서 만나는

제1차

# 휴먼북도서관

사람이 책이 되어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도서관



2024. 4. 25.(목) ~ 6. 20.(목)  
도시철도 부암역 대회의실

1회

목적이 있는  
삶의 코칭  
서지선

신청일시  
2024.4.11.(목) 10:00 ~  
4.23.(화) 18:00

행사일시  
2024.4.25.(목)  
10:00~12:00

2회

사진과 함께한  
행복한 생활  
박재봉

신청일시  
2024.5.2.(목) 10:00  
~ 5.14.(화) 18:00

행사일시  
2024.5.16.(목)  
14:00~16:00

3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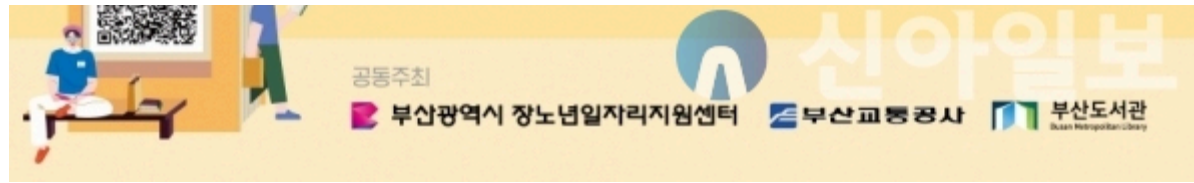
좋은 부모가 되는 길,  
자녀 교육 이야기  
이성주

신청일시  
2024.6.6.(목) 10:00  
~ 6.18.(화) 18:00

행사일시  
2024.6.20.(목)  
14:00~16:00



대상 강연에 관심 있는 부산시민 20명  
신청 부산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 
신청·예약 > 행사·강좌 > 행사신청



부산교통공사, '도시철도에서 만나는 휴먼북도서관' 운영사진=부산교통공사 제공

부산교통공사가 2호선 부암역에서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 대화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'도시철도에서 만나는 휴먼북도서관'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.

'휴먼북도서관'은 '휴먼북\*'으로 등록한 신중년이 관련 주제에 대해 열람자에게 대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가며 지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식의 강연 프로그램이다.

도시철도에서 만나는 첫 '휴먼북' 열람(강연)은 25일 2호선 부암역 대회의실에서 열람신청자를 대상으로 '목적이 있는 삶의 코칭'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.

공사는 12월까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2호선 부암역 내 대회의실에서 '휴먼북도서관'을 진행할 예정이며, 시민들의 문화시민 역량과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부산도서관,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와 협업한다.

강연 프로그램은 △ 교육 △ 문화·예술 △ 복지·상담 △ 인문 △ 취미·여가의 5개 분야 9개 '휴먼북'으로 구성된다. 모든 강연은 월 1회 1일 과정으로 운영되며, 정원은 강연별 20명 내외다.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다양한 분야의 신중년 강사 9명이 '휴먼북'으로 등록했다.

강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부산도서관 누리집에서 매월 첫 번째 목요일부터 세 번째 화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. 강연내용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및 부산도서관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다.

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"휴먼북도서관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"며 "문화예술의 생활화를 통해 부산 시민의 삶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본 강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"고 말했다.

[신아일보] 조경환 기자

저작권자 ©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조경환 기자 기자

 인쇄